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일본 와규 소고기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

- 말레이시아 농업부와 보건부, 그리고 이슬람개발부(JAKIM)의 승인 조치에 따라 일본 와규 소고기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기 시작
- 말레이시아 농업부에 따르면, 와규 소고기는 말레이시아 현지 슈퍼프리미엄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
- 현지 판매 가격은 등급에 따라 킬로그램 당 2,000링깃(약 54만 6,000원) 수준
- 말레이시아 농업부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을 통하여 말레이시아-일본 간의 무역거래가 개선되어, 말레이시아산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다양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
- 말레이시아는 현재 망고스틴과 파인애플, 오리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, 두리안 수출 성사도 희망하고 있음

* 출처: 2018년 5월 15일, '더 썬 데일리'

2. 말레이시아, 베트남산 축산물 수입 확대 고려

- 가축의 가공 및 수입, 수출 분야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양국 기업들이 지난 4월 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무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짐
- 세미나에 참석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Tran Thanh Nam 차관은 축산업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
- 'Vinamilk', 'Minh Dang' 등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회사와 제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였으며,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소고기, 우유, 유제품, 동물 사료 등의 베트남 제품에 관심을 보임

- 말레이시아는 현재 우유와 소고기에 대해 각각 국내 수요의 60%와 23%를 자국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수준이며, 이 부분에 대한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

* 출처: 말레이시아 농업부

3. 가금류 사료 수입의존도 줄이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노력

- 말레이시아 농업부는 말레이시아 가축 산업을 위한 자체 사료원료를 생산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힘
-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‘Livestock Asia 2018’(아시아 축산박람회) 의 개막식에 참석한 아흐마드 샤버리 칙 농업부 장관은 국내 가금 산업이 수입 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
- 사료용 옥수수의 국내 재배를 늘림과 함께 닭고기 사료에 ‘palm kernel cake’(PKC: 팜핵 케이크) 또는 palm kernel expeller(PKE: 팜핵 엑스펠러)의 사용을 더 늘림으로서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30~40%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료 비용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
- 농업부는 가축 사료를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30~40만 헥타르 토지가 필요하다고 밝힘
- 농업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가금류 부문은 자급률이 125%에 달함
- 말레이시아는 가금류 제품 및 계란 총 125% 중에서 약 20%를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, 농업부는 생산 및 수출의 확대가 링깃화 강화에 영향을 미쳐 닭고기와 계란의 수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

* 출처: feednavigator (2018.04.25.)

4. 말레이시아의 밀 수입량 유지 전망

- 미국 농업부(USDA)에 따르면, 2018년-2019년 말레이시아의 전체 밀 수입량은

2017년-2018년의 190만 톤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

-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밀의 대부분은 인스턴트 라면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데, 네슬레(Nestle), 마미 더블데커(Mamee Double Decker) 등 주요 생산자 측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미국의 대 말레이시아 밀 수출량은 2015-2016년 20.9만 톤에서 2016-2017년에 21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,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식문화 변화로 인하여 빵과 제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

* 출처 : USDA GAIN REPORT

5. 말레이시아의 쌀 수입

- 미국 농업부(USDA)에 따르면, 2017년 쌀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. 2018-2019년에도 농지 확대가 예상되지 않아 쌀 생산량이 182만 톤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
-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악천후와 해충, 병충해의 문제로 쌀 생산이 감소하였음. 이에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기구(MARDI)가 도입한 하이브리드 논종을 사용하여 일부 문제가 극복되었으나 생산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여전히 제한적인 요소가 남아 있음
- 말레이시아 정부는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체 종자, 비료, 살충제, 관개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
 - 1톤 당 1,200링깃(US\$270)의 지원비
- 국내 쌀소비는 2017-2018년 275만 톤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,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간 3%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바 2018-2019년에는 280만 톤으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ST-15 품종은 현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저렴한 품종으로 그 낱알이 길쭉한 모양을 띠며, 태국 산 자스민

쌀은 도시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ST-15 가격의 약 두 배 수준임

- 2017년도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쌀의 80%에 해당하는 63만 톤이 태국과 베트남에서 공급되었음. 그 외는 캄보디아, 파키스탄, 인도 등이 말레이시아로 쌀을 수출하고 있음
- 말레이시아 정부는 총 소비량의 20%를 재고비축량으로 유지하고 있음
 - 정부비축량 30만 톤, 민간부문 비축량 19만 톤 수준
- 쌀은 수입과 유통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통제항목 중 하나임. HS코드 1006에 따라, 쌀에는 40%의 수입세가 부과됨. 추가적으로 수입업자들은 농업 및 농업기반산업부 산하 쌀 수입공사(BERNAS 또는 Padi Beras Nasional)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(사료용 쌀의 수입세는 15%)

JKDM HS Explorer KEMASKINI TERKINI - 1 APRIL 2017

Search HS Act and Order Contact Us

Tariff Type

PDK 2017

Search Tariff

Search Criteria :
 HS CODE
 Search Keyword:
 1006
 Search !!

PDK Update History

UPDATE DATE	CHANGES MADE
30-08-2017	KEMASKINI KADAR DUTI EKSASIS
01-04-2017	KEMASKINI KADAR DUTI
14-05-2013	KEMASKINI KADAR DUTI

PDK - PERINTAH DUTI KASTAM

HEADE	SUB	ITEM	UNIT	DESCRIPTION	OLD HS	IMPORT RATE	TR
				Rice.			
				- Rice in the husk (paddy or rough):			
1006	10	1000	KGM	-- Suitable for sowing		40.00%	
1006	10	9000	KGM	-- Other		40.00%	
				- Husked (brown) rice:			
1006	20	1000	KGM	-- Hom Mali rice		40.00%	
				-- Other:			
1006	20	9010	KGM	--- Glutinous rice		40.00%	
1006	20	9090	KGM	--- Other		40.00%	
				- Semi-milled or wholly milled rice,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:			
1006	30	3000	KGM	-- Glutinous rice		40.00%	
1006	30	4000	KGM	-- Hom Mali rice		40.00%	
1006	30	9100	KGM	--- Parboiled rice		40.00%	
1006	30	9900	KGM	--- Other		40.00%	
				- Broken rice:			
1006	40	1000	KGM	-- Of a kind used for animal feed		15.00%	
1006	40	9000	KGM	-- Other		40.00%	

- 쌀 수입은 2016-2017년 100만 톤에서 2017-2018년 9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고량을 2016-2017년의 48만 톤에서 2017-2018년 40만 톤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면서 수입 감소 기대

* 출처 : USDA GAIN REPORT

1. GST(상품서비스세) 폐지, 9월부터 SST(판매서비스세) 재도입

-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던 말레이시아의 ‘상품서비스세’(GST)가 2018년 6월 1일부로 기존의 6%에서 0%로 삭감됨
- GST를 대신하여 말레이시아 새 정부는 판매서비스세(SST)가 2018년 9월 1일부터 재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표준 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
- 나집 라작 전 총리 정부는 세무 행정 및 관리의 기능, 효과 및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정부 세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, 그 일환으로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‘판매서비스세’(SST)를 ‘상품서비스세’(GST)로 대체한 바 있음
- 기존의 SST는 5~10%로 기업이 부담하는 single stage tax인 반면, GST는 세율을 6%로 단일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단계마다 부과되는 multi stage tax로 최종 소비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
- 말레이시아에서 판매세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세금으로, 판매세율의 수입은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임
-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의 평균 판매세율은 평균 7.08%이며, 2007년에는 10% 최고 판매세율을 기록했고, 2018년에는 0%를 기록했음

* 출처 : <https://tradingeconomics.com/malaysia/sales-tax-rate>

2.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

-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% 이상이 무슬림(이슬람교)이기 때문에 ‘할랄 인증’을 받은 제품은 ‘품질 인증’ 받은 제품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

-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기관은 JAKIM이며, 할랄 인증 대상 제품군은 식품, 화장품, 의약품 등 산업 전반에 해당하지만 주로 식음료 분야에서 취급 경향이 가장 높음
- 식품, 화장품 등에 대한 할랄 인증은 수입 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이 없이도 말레이시아에 수출은 가능함
- 최근 화장품 부문 및 제약 산업 부문에 대한 할랄 인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, 혈액에서 추출한 제품,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류는 제약성분에서 제외되며, 동물성 제품의 젤라틴, 캡슐 등의 제품도 금지됨